

2010.10.04 미래정책연구실

※ 본 자료는 10월 1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“김장철 채소류 수급안정 대책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현재 배추·무 가격 급등 원인 및 가격 전망

- 현재 출하되고 있는 고랭지 배추·무가 봄철 저온, 여름철 폭염, 잦은 강우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재배면적이 감소하거나 작물생육 불량, 병충해 피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생산량이 **평년의 30%~40% 감소**한 데 기인
 - 고랭지 배추 생산량 : (평년) 252천 톤 →(‘10년) 151천 톤(40% 감소)
- **공급량 부족 현상은 10월 중순까지 계속**되어 가격은 비교적 높게 유지될 것이나, 그 이후로는 준고랭지 2기작 출하량, 열갈이 배추 소비 등이 늘어 지금보다는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
- 10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**가을 무·배추** 생산량은 지난해 가격이 크게 낮았던 점과 정식 지연 등으로 인해 **재배면적이 줄고, 작황도 부진하여 평년보다 감소** 전망
 - 평년대비 무 생산량 97천 톤, 배추 생산량 180천 톤 감소 예상
- 11월 배추 가격은 포기당 2,000원대(평년 1,240원), 무 가격은 개당 1,500원대(평년 740원)으로 전망

□ 김장철 채소류 수급 안정 대책

1. 개요

- 가을배추 증수 추진, 월동배추 조기 출하, 수입 촉진 등을 통해 공급을 최대한 늘림.

- 대체 소비 권장 등을 통해 수요 조절

-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등 유통질서 확립을 적극 추진

2. 주요 내용

○ 가을 무·배추 출하 전 공급 대책 추진

- 산지유통인들의 협조를 받아, 10월 중순까지 **고랭지 채소 잔량의 조기 출하** 유도
 - 출하 잔량 : 배추 20천톤(전년 30천 톤), 무 8천톤(전년 10천 톤)
- 열갈이 배추, 열무 등 **대체품목의 소비 확대** 유도
 - 경기 고양, 남양주, 포천 등지에서 열갈이배추 등 생산량 증가 예상
 - ※ 생산예상량 16천 톤, 10월중순부터 본격 출하)
- 배추 등 **원활한 수입** 지원
 - 신선 무·배추 **한시적 무관세** 적용(현 관세 : 무 30%, 배추 27%)
 - 검역·통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되, 수입증가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검역 및 식품안전검사 실시
 - 10월 중 유통공사가 **중국에서 배추 100톤, 무 50톤을 우선 도입**하고 향후 국내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추가 수입 준비
 - ※ 롯데마트에서 중국산 배추 5만포기를 10월 초순에 도입, 포기당 2~3천 원 수준에서 판매할 예정이며, 여러 수입업체에서도 중국내에서 물량 확보를 추진 중
 - ※ 신선배추는 연간 100~200톤내의 수입, 국내 가격이 높았던 2007년의 경우 8~12월 수입량이 2,059톤
- **가을배추 영양제 보급 및 재배 기술지도 강화** 등을 통해 5~10만 톤 수준의 증수 유도

- 정식 지연, 습해 등으로 초기 생육이 불량한 배추포장에 영양제 (엽면시비용 복합비료) 살포를 선 집행,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
 - 희망 지자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80% 국고보조
- 27개 주산지에 중앙단위 현장기술지원단(농진청, 6개반) 운영 (10~11월)
 - 병충해 방제, 관배수, 영양제 살포요령 등 기술지도 실시
 - ※ 주산지 시·군단위 자체 기술지원단도 구성 및 운영

○ 월동배추 조기출하 및 농협 계약재배 물량 확대

- 계약재배 월동배추 물량의 12월 중 조기 출하(예년 1월~4월 출하)를 유도하여 5~6만 톤 수준의 가을배추 수요 대체
 - 계약재배 물량 확대 : ('09년) 156천 톤[배추 117, 무 39]
 - ('10년) 190[배추 140, 무 50]
 -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는 월동배추 계약재배 물량 전년 대비 62% 확대('09년 37천 톤 → '10년 60천 톤)

○ 마늘 등의 TRQ물량 적기 도입·방출 및 증량 추진

- (마늘) TRQ 1만 4,467톤 중 도입잔량(2,263톤)은 10월말까지 간마늘 형태로 도입, 김장철에 공급
 - 공급량 확대를 위해 TRQ 12천 톤 증량 별도 추진
 - ※ 법제처 심사 등 기재부 고시 절차 신속 진행(10월중)
- (고추) TRQ물량(7,185톤)을 11월말까지 도입, 계약재배 물량(1만 5천 톤)과 함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 공급
- (배추) 민간수입 촉진을 위한 해외 시장 정보 지원 및 필요시 유통공사가 즉시 직접 또는 대행 수입 추진

○ 김장 늦게 담그기, 월동배추 활용 등 합리적 소비 유도

- 소비자단체, 생산자단체(대표조직) 합동으로 월동배추를 활용한 김장 2번 담그기 등 운동 전개
- 주요 도시에 김장시장을 개설(지자체, 농협), 10~20% 싼 가격에 공급

○ 김장철 일시적 가격 차이를 노린 불공정거래 행위 등 집중 단속

- 국세청,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재기, 출고시기 조절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담합 등 부당행위 점검

○ 이상기후에 대비, 채소류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 마련(12월)

- 시설재배·계약재배 면적 확대 및 산지·소비지 저온저장시설 확충
- 물류 전문화(포장, 수송, 보관), 정가·수의 매매 활성화
- 직거래 확대 등 유통단계 축소 등